

‘맛깔난 사투리’ 이정은
 ‘졸지에 쌍둥이’ 김병철·조우진
 ‘진짜 일본인 배우 아냐?’ 김용지

“극 중 감초는 나야 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은, 김용지, 김병철, 조우진 ▶

‘미스터 션샤인’ 명품 조연들
 중견 배우 노련함 돋보여
 배우 간 팀워크도 한 몫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PD의 신작으로 스토리는 물론 PPL(간접광고) 하나까지 화제가 되는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의 또 다른 주인공은 ‘명품 조연’들이다.
 주인공 5인방이 큰 줄거리를 이끌어간다면 조연들은 틈새를 채우면서 극의 강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조연 중에는 중견 배우가 많아 무게감 조절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애신(김태리 분) 얘기씨의 유모 합안택으로 분한 이정은(48)은 데뷔 25년 차 연극배우답게 극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미 2013년부터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 출연한 그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서브 여주인공’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보다 얘기씨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를 흰히 껴뭉기에 할 수 있는 잔소리와 농담들, 행랑아범(신정근)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수행비서가 아니라 밤마다 친인파를 처단하러 다니는 얘기씨를 보필하는

역할로서 코믹과 진지함을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정은 소속사 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4일 “배우가 합안택 연기를 위해 실제 경남 함안 사투리 선생님을 모시고 연습도 했다. 대본 자체에 워낙 사투리가 맛깔나게 적혀있기도 하다”며 “PD뿐만 아니라 김태리, 신정근과 워낙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팀워크를 시청자들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가 개화기가 배경인 작품을 꼭 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시청자가 볼 때도 재밌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졸지에 쌍둥이’가 된 일식이 역 김병철(44)과 임관수 역 조우진(39) 역시 ‘미스터 션샤인’에서 빠질 수 없는 캐릭터들이다. 극 중 인물들이 끊임없이 돌의 얼굴을 헛갈리자 당사자들도 이제는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는 데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도깨비’에서도 함께한 두 사람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나만 닮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며 안도(?)하는 모양새이다.
 조우진은 또 낙천적이고 인정 많은 역관 관수를 통해 다소 무거운 스토리 속 ‘숨통’을 트는 역할도 한다.
 조우진은 소속사 유분컴퍼니를 통해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시청자의 좋은 관심과 반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동매(유연석)의 곁을 지키는 호타루 역의 김용지(27)는 첫 드라마 데뷔부터 독특한 마스크로 시청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일본 전통복장이 너무 잘 어울린 덕분인지 “진짜 일본인 배우 아냐냐”는 말도 들었다.
 타로 점성술사인 호타루 역에 맞게 말 한마디 없이도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김용지는 원래 모델 출신이다. 김용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광고, 화보,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처음 정극에 도전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아 본인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잘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나약한듯 나약하지 않은 고증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이승준과 구동매의 오피셜 유조 역 유준만, 일본군 쓰다 하사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정현 등도 ‘미스터 션샤인’의 리얼리티와 극성을 살리는 주역들로 꼽힌다.
 배우들의 열연 속에 드라마 역시 점점 자리를 잡아간다.
 지난 29일 방송한 8회에서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가구) 12.3%를 찍은 ‘미스터 션샤인’은 중반부를 향해 가면서 주인공 5인방 간 감정과 구도가 명료해졌고, 러브스토리뿐만 아니라 시대의 비극과 얼굴 없는 의병들의 활동상에도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이야기가 훨씬 풍성해졌다는 평이다. /연합뉴스

‘비블리오 배틀’
 ‘느낌표’ 뒤 잇나

독서 장려 ... MC 김용만
 MBC 오늘 밤 첫 방영



▲ 김용만과 임하룡

다시 한번 ‘독서 북’을 일으킬 수 있을까.
 MBC TV가 과거 히트한 ‘느낌표’-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뒤를 이을 만한 또 하나의 독서 파일럿 프로그램 ‘비블리오 배틀’을 내놨다. MC 역시 ‘느낌표’에서도 함께한 개그맨 김용만이다.
 그러나 형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비블리오 배틀’은 국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리더(reader)가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책과 책에 얽힌 사연 등을 제한시간 5분 안에 발표하면 판정단 100명이 투표를 통해 ‘오늘의 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작진은 “책은 가벼운 웃음을 전하기도, 때로는 깊이 있는 지식을 깨치게 하기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국민독서실태조사결과 성인 1명의 한 달 독

서량은 고작 0.7권으로 나타났다.
 ‘책의 해’를 맞아 좋은 책, 나에게 맞는 책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5분간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책을 소개할 리더들은 ‘영원한 젊은 오빠’ 배우 겸 개그맨 임하룡, 영화평론가 이동진, ‘군함의 아이콘’이자 ‘이색 수집가’로 알려진 배우 최민용,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wanna-be)인 모델 송해나, 제주를 그리는 10살 동화작가 전이수가 나선다.
 김용만은 리더들의 이야기에 재치를 더하고, 다양한 연령대로 모인 판정단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원조 독서 장려 전문 MC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예정이다.
 6일 밤 11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미션 임파서블 6’ 500만 관객 돌파

‘미션’ 시리즈 중 가장 빠른 속도

톰 크루즈 주연의 첩보액션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하 미션 임파서블6)이 개봉 11일째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4일 오후 ‘미션 임파서블6’의 누적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6’는 역대 ‘미션’ 시리즈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달성한 작품이 됐다. 전작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은 개봉 14일,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은 18일째 500만 명을 돌파했다.
 ‘미션 임파서블6’는 IMF 요원 에단 헛트(톰 크루즈 분)가 테러조직에 맞서 핵 공격을 저지한다는 내용으로, 톰 크루즈가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펼쳤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리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사생결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열린공간 토크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차츰우돌 만국 유랑기	55 닥터 365
2	5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비밀과 거짓말(재)	00 토크 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5 MBC 뉴스 20 출발! 비디오팀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자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츰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도 인간이니?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여름특선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안녕하세요	10 책의 해 특집 비블리오 배틀	10 동상이몽2 너는 내연명 1~2부
12	3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5 UHD 특선 다큐 라이프 오브 독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고기 감자조림과 수박 깎구미)
0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알프스산맥 이탈리아 돌로미티>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림(재)
08:30 몬카트(재)	14:30 몬카트(재)
08:45 방귀대장 뽀뽀로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00 뽀뽀로로 노래해요	15:15 아프리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0:30 한국기행(재)	16:15 뚝딱맨
	16:30 방귀대장 뽀뽀(재)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19:00 몬카트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이탈리아 산골 기행 1부 알프스가 품은 땅 발레다오스타>	
21:30 한국기행 <여름, 오감기행-청각행, 지리산 블루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부모성적표 스페셜	
23:55 배워서 남줄림(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6일(음 6월 25일 庚午)
<p>36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할 것이다. 48년생 병행하여 나아가도 무리가 없다. 60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 되리라. 72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들이 절실하다. 84년생 맹점을 보완 했을 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1, 92</p>	<p>42년생 기존 상황을 재평형한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54년생 학습고대하여 왔던 회소식을 접한다. 66년생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78년생 커다란 재앙의 불씨가 보인다. 90년생 압박하였으니 확실한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3, 40</p>
<p>37년생 속도 보다 완성이 요구되는 판도이다. 49년생 중된 것에 소홀히 할 수다. 61년생 재 묶을 해낼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73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떠한 판국에서나 헤쳐 나갈 수 있다. 85년생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하는 국량이다. 행운의 숫자 : 67, 13</p>	<p>43년생 지난 일은 차치하는 것이 속 편할 것이다. 55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준비를 하라. 67년생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해하리라. 79년생 자선이 될 만한 것이 보이니 놓치지 마라. 91년생 지혜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65, 03</p>
<p>38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50년생 강구한다면 능히 방책을 찾게 되리라. 62년생 내색 필요까지는 없다. 74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86년생 과신은 손재를 부르니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행운의 숫자 : 09, 87</p>	<p>44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목적을 이루리라. 68년생 길조가 따르는 날이다. 80년생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야 할 때다. 92년생 좁은 폭으로 길게 이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27, 71</p>
<p>39년생 단처럼 잘 잡아낸다면 진전을 보이리라. 51년생 작은 차이는 무시해도 지장이 없다. 63년생 자발적이라면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리라. 75년생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있을 것이니 감수하라. 87년생 반드시 준비 하여야 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9, 70</p>	<p>45년생 도중에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57년생 갈 길이 바쁘니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흔들리지 않으면 일을 차지하고 서둘러서야 할 때다. 70년생 성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겠다. 82년생 유지하고 있어야만 활용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7, 62</p>
<p>40년생 방법을 달리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52년생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날이다. 64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76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88년생 관한 헛발짐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75, 55</p>	<p>34년생 주목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46년생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나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58년생 모든 일을 차치하고 서둘러서야 할 때다. 70년생 성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겠다. 82년생 유지하고 있어야만 활용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7, 62</p>
<p>41년생 인화야말로 만사가 성사되는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53년생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 볼 필요가 있다. 65년생 의행까지 관리한다면 효과적이다. 77년생 마음만 달리 먹는다면 행운을 잡는 셈이다. 89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91, 33</p>	<p>35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47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준다. 59년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71년생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비우면 만드신 채워지리라. 83년생 상당히 귀찮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21</p>